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998, Vol. 7, 157-169

조선조(朝鮮朝)의 노인복지정책과 건강관리

김 수 욱

김 미 영

전남과학대학 간호과

동강대학 간호과

(요약) 본고는 조선조의 노인복지 및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조의 노인복지와 건강관리는 기본적으로 유교의 효 사상에 근거하지만, 통치자들은 백성들에게 효를 강조하면서 충 사상을 가르칠 수 있었다. 충효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선조의 대표적인 노인 복지의 형태는 양로원과 같은 의식을 들 수 있는데, 백성들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노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인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또 조선조의 건강관리는 오늘날처럼 신체와 정신 두 차원을 모두 강조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법은 감정의 절제라고 가르쳤다.

[Key Words: 노인 간호, 노인 건강, 노인 보건, 노인 복지]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16-910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산 85번지 전남과학대학 간호과 김수욱 교수 또는 (우) 500-714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771번지 동강대학 간호과 김미영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후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실 경우 sokim@mail.ac.kr로 하시길 바랍니다.

I. 서 론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나 건강의 관심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는데, 그러한 관심은 20세기 중반 이후 노인 인구의 증가로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996년 현재 전체 인구의 5.8%이며, 2000년에는 6.8% 그리고 2020년에는 12.5%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성장과 의료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1995년 현재 72세를 넘었으며 (남 69.5세, 여 76.6세), 2020년에는 77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통계청, 1997).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그리고 핵가족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은 전통적으로 높은 위신을 유지하고 존경을 받고 살아왔던 노인들의 입지를 물질적·정신적으로 크게 위협하고 있다 (박재홍, 1990; 양경희, 1998).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데, 1995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약 87.6%가 만성퇴행성 질환을 한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또 그들 중 35% 정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있다 (김주희, 1998).

현재 노인 복지 및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정책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권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서구 문화권의 복지정책을 본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노인에 대한 견해가 달랐던 우리 문화권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시 우리 문화권에 뿌리를 내린 간호학도 서구의 문화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였는데, 우리의 전통을 토대로 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때 환자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영복, 1991; 최영희·고성희·강신포, 1992; 최준식, 1998).

곧 복지정책과 간호가 그 사회의 전통적 문화를 기초로 구성되어야 한다면, 한국적 복지정책과 간호를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영자,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로사상을 중요시하였던 조선시대의 정책에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건강에 대한 관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토대로 우리 문

조선조 노인복지정책과 건강관리

화권에 맞는 노인복지정책과 간호를 정립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론은 문헌 고찰이었으며, 특히 조선 왕조실록을 근거로 노인복지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정책을 추론하였다. 물론 질병치료나 간호행위와 관련된 문헌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국가의 정책보다도 실제 질병치료나 간호에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국가의 정책이나 명령을 기록한 왕조실록에서 노인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노인에 대한 국가 정책을 파악하는 편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되었다. 또 국가의 정책은 시대에 따라서 왕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조선조 초기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정책이 조선 왕조 내내 주요한 지침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헌 고찰은 조선 전기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하였다.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은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지만, 노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측면은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추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후자의 경우는 질병치료와 간호행위를 기술한 문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노인건강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는 개인이 저술한 문집을 참고로 접근하여야 하지만, 이는 너무 방대하여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강과 관련된 문헌만을 고찰하였다.

II. 경로사상 및 노인복지정책

조선시대에는 60세 되는 시기에 군역(軍役)이나 요역 등 여러 가지 국가의 의무를 면제받았다. 또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60세가 되어야 자손으로부터 봉양과 사회적인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60세라는 연령이 노인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다. 단, 관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넘어도 직급에 따라서 관직에 머무를 수 있는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었다 (세종실록, 세종 17년 7월 7일, 經國大典, 老人職, 致辭條).

조선시대에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우대가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

는 통치이념으로 작용하였다. 국왕으로부터 천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대하여 공경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고대중국 주(周)나라의 경로사상제도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노인의 신분을 막론하고 국왕이 노인을 우대하는 일은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지만, 역시 권력층과 일반 민중에게 가시적인 명분을 제공하는 행위이었다. 즉 통치자들은 노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는 것과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성규탁, 1989).

조선시대의 여러 통치자들은 스스로 노인을 공경하는 자세를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종실록, 세종 18년 1월 15일; 중종실록, 중종 23년 12월 20일; 인조실록, 인조 8년 4월 2일; 성종실록, 성종 23년 9월 14일),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백성들은 가족 내에서는 노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문헌들에 나타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조선조에 나타난 노인을 우대하고 공경하는 사상, 즉 복지 정책은 ① 관념적인 측면과 ② 현실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관념적인 측면은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 즉 孝를 바탕으로 사회 윤리를 확립시키려는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매어 있었던 신하들이 통치자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통치자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거나 신하들을 견제하고자 할 경우 노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강화시켰다. 비록 왕의 입장과 다른 신하들도 노인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명분에 의해서 하달된 통치자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노인복지 정책의 현실적 측면은 ① 물질, ② 의례 (ritual, 의식), ③ 정치, 그리고 ④ 정신적인 배려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대연, 1985). 물질적인 배려는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고 여러 통치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물질적인 배려가 관직을 역임하였거나 부유한 계층의 노인들에게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노인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때 왕마다 그 기준이 약간씩 달랐지만, 대부분 노인의 연령을 근거로 차등화 시켰다. 조선조에서

조선조 노인복지정책과 건강관리

노인에 위한 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실시된 세종조의 실례를 보면, 10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매년 쌀 10석과 매달 술과 고기를 비롯하여 추위에 대비하여 명주와 솜도 지급하였다. 역시 90세 이상의 노인이 연고가 없이 타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 사철 옷감을 지급하였으며, 80세 이상의 노인으로 자손이 없는 경우 관청에서 의식주를 해결시켜 주었다. 이러한 점은 중앙이나 지방의 수령이 그 노인들에게 문안을 드리고 옷과 음식을 지급했다는 왕조실록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세종실록, 세종 15년 8월 28일, 9년 11월 11일, 8년 7월 18일). 또 노인을 돌보는 일이 수령들의 정규 업무의 하나이었을 것으로도 짐작된다 (김대연, 1985).

통치자는 역시 이와 같은 노인을 위한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는데, 감찰 활동을 통하여 그 실시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8년 7월 18일). 또 가족이 없는 노인, 독거 노인, 과부, 고아 등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었다. 역시 정기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왕이 노인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명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태종실록, 태종 4년 8월 20일).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날마다 한끼씩 주고 5일마다 쌀, 간장, 어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도 있으며,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쌀과 콩을 주는 경우도 있다 (세종실록, 세종 27년 3월 14일). 물질적인 배려를 통한 노인을 위한 정책이 세종조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지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의례에 관한 설명이다. 조선조에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의식으로 표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종조에 마련된 양로연(養老宴)이라는 행사이다 (김태현, 1994). 노인들을 위한 잔치인 양로연은 봄과 가을에 지방과 중앙에서 각각 베풀어졌는데, 양로연에 참석한 노인들에게는 나라에서 마련한 음식과 기념품 등이 제공되었다 (세종실록, 세종 14년 1월 7일, 16일). 따라서 양로연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공경을 국가 차원에서 가족과 사회에 알리는 충효사상을 고양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양로연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은 80세 이상으로 천인에 이르기까지 신분 제한은 없었지만, 양로연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의 신분에 대하여 통치자와 신하들간의 입장 차이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로연을 통하여 배풀어지는 혜택에서는 신분간의 차이가 있었다. 보통 양로연에 참여한 노인에게는 품계를 올려주었는데, 높은 관직을 역임한 노인들에게 주로 이러한 혜택이 돌아갔다. 간혹 평민신분의 노인에게도 품계를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천민신분의 노인은 예외로 그러한 혜택이 전혀 없었다 (인조실록, 인조 8년 4월 2일; 중종실록, 중종 23년 10월 15일).

양로연이라는 의식의 거행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노인을 우대한다는 통치 이념을 모습을 전국에 알리는 조치이었다 (김대연, 1985). 간혹 자연 재해나 국가적으로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하들은 양로연의 실시를 유보하기를 간청하였지만, 통치자들은 그러한 경우에도 양로연 행사만을 거를 수 없다고 하면서 개최하도록 하였다 (연산군실록, 연산군 7년 9월 18일). 조선시대 왕들이 양로연 행사를 자신들의 통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노인복지 정책의 현실적 측면에서 세 번째 요소는 정치적 배려의 차원이었다. 예를 들면, 70세 이상의 노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형을 감해주거나 특정한 형벌을 내리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물론 노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 완전히 죄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11년 7월 30일). 역시 노인에게 관직을 주거나, 80세 이상의 천인에게 천인의 신분을 벗어나도록 하는 조치 등은 계급사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을 우대하였던 조선시대의 노인 복지정책의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현실적 측면에서 네 번째 요소는 정신적 배려이었다. 즉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 자긍심 등을 유지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배려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노인들에게 그 대책을 묻도록 하였다. 노인들의 지혜를 빌어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얻고자하는 행위로부터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조 노인복지정책과 건강관리

또 노인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시하였다. 자식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자식과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가 하며, 죄를 지어 유배당한 자식 때문에 부모가 괴로워하는 경우 죄를 진 자식을 방면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조실록, 선조 28년 10월 6일; 성종실록, 성종 24년 9월 30일). 물론 이러한 조치가 항상 취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통한 노인의 부양에 대하여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III. 노인의 건강관리 및 간호

조선조에서 노인을 돌보는 행위는 유교사상에 의한 효의 원리에 있었다 (김대연, 1985; 성규탁, 1989; 이영자, 1996). 오늘날에도 가족의 구성원이든지 그렇지 않은지 노인을 돌보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과거로부터 뿌리내린 효도의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관리도 역시 효의 차원에서 해석된다. 조선조에는 노인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체적 건강 관리. 우선 신체적 측면의 노인 건강관리는 의식주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다른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관리에서 의식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계절과 나이에 따른 음식, 거주하는 주변의 환경과 계절에 맞는 의복 등이 노인의 신체적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주요한 요인들이었다. 예를 들면, “50에 쇠약해지고 60에는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아니하고, 70에는 비단이 아니면 따뜻해지지 않으며, 80에는 조정에서 지팡이를 짚는다는 말이 있다 (중종실록, 중종 11년 1월 25일)” 라고 할 정도로 노인에 위한 음식과 체온 조절 등에 관심이 표명되었다.

의식주 중에서 의복과 주거에 대한 인식은 더위와 추위를 방지하고 또 자신의 신체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 특히 추위나 더위에 약한 노인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졌다. 그 예로 양로원 행사를 개최할 때도 더위나 추위를 피해서 봄과 가을에 실시하였는데, 절기에 따라서 날짜를 조정하여 택일을 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17년 7월 12일). 노인을 돌보는 행위들 가운데에서도 체온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였듯이, 노인들도 역시 스스로가 기후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신체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다.

의식주 중에서 신체적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음식이다. 조선조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고기를 섭취하여 영양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국가에서 육식을 금지시키던 시절에도 노인들의 고기 섭취는 예외로 규정하였다 (성종실록, 성종 1년 1월 4일). 특히 소고기가 노인들의 영양 보충에 적합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를 중요시 하던 농경사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에게 소고기를 먹도록 배려하였다. 당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하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국가에서 노인에게 제공되는 주요한 영양 자원은 대부분 소고기이었다 (세종실록, 세종 29년 6월 23일).

또 계절에 따라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이 권장되었는데, 이는 노인에게 계절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여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계절에 따라서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도 달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마시는 것으로 양기를 기르는 것은 봄과 여름, 먹는 것으로 양기를 기르는 것은 가을과 겨울에 하게 된다 (세종실록, 세종 2년 11월 5일)”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건강의 관리에서 현대 과학적 입장과 색다른 것이 바로 앞 절에서 언급된 예처럼 기후의 기운, 즉 음양의 순환에 적합한 음식 섭취가 건강에 중요하다고 믿는 점이다. 건강을 위하여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하여 기를 섭취하려고 노력하였던 입장은 과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보편화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음식의 섭취를 영양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이루는 방편이었는데, 이는 신체 건강이 자연의 기후나 온도의 변화 등과 관련된 입장이었다. 결국 인간의 생활을 자연 원리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노년기에는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자연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와 섭취방법을 중요시하였다.

정신적 건강 관리.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요소도 중요하지만, 전통사회에서도 노인들의 건강 유지나 장수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심리적 안정에 주목하였다. 특히 정신적 건강 관리의 요건으로 감정의 절제를 강조하였다. “노인이 된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노하거나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다 (성종실록, 성종 17년 2월 8일, 장수노인 김세민의 말)”라는 기록을 통해서 노년의 건강 유지가 심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즉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감정의 분출을 억제시켜 마음의 안정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가 장수의 한 비결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감정 절제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는 성리학적 수양에서 비롯되었으며, 또 유교의 중용(中庸)의 자세와도 연결된다 (권봉숙, 1997; 이영자, 1996). 노인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음식을 조절하고, 거주지와 의복을 기후에 적절하게 살피는 행위는 노년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었다. 그렇지만 의식주를 충족시키는 것은 결국 극단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할 수 있다. 매우 관념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 노인의 건강 관리는 생활 속에서 지켜지는 절제된 감정과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IV. 노인의 간호

여러 문헌들은 질병의 발생이나 예방의 차원에서 기술된 조선조의 간호행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영자, 1996; 최영희 등, 1992). 여러 가지 간호행위의 형태들 중에서 질병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다면, 이들은 주위환경의 요소, 식이 조절, 그리고 간병 행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위환경. 주위환경의 조건으로는 주로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및 계절에 적합한 분위기의 조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조성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간호를 위한 조건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환자가 아닌 노인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건이다. 예를 들면, 예기(禮記: 內訓, 戒女書)에는 노부모가 병환중일 때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웃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모가 병환중인 경우 간호를 하는 사람도 정숙한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노인을 즐겁게 하는 행위까지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도 노인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에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노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편히 쉬고 잘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禮記, 閨門寶鑑). 계절에 맞는 분위기의 조성은 계절에 따라서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도록 적절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노인이 환자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거처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식이 조절. 식이 조절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간호하려는 행위에도 효도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곧 자연과의 조화를 위하여 분수에 넘치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하고 정결한 음식을 노인에게 드리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자세이며, 이러한 자세는 바로 효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나이에 알맞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도가 적절한 음식을 정결하게 드리도록 가르치고 있다 (禮記, 鄉藥集成方). 이는 나이에 맞게 영양을 공급과 적절한 온도 유지를 통하여 신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간호행위가 된다.

간병행위. 조선조의 간병행위의 필수적 요소들은 병상을 잘 지키면서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환자의 상태에 알맞은 음식물을 섭취시키는 것, 그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간병인 자신을 희생하는 것 등이었다. 우선 조선조의 유교 사상은 가족 중에 연장자나 부모에게 질병이 생기면, 병상을 잘 지켜야 한다는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 세종도

밤을 세워 태종의 병상을 지켰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도리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 집안의 어른이 병중일 때 모든 가족이 행동을 삼간 채로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간병행위의 이러한 특성은 가족과 내를 하나로 보는 우리 문화의 일부분이며, 환자와 나, 거시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을 둘로 보지 않는 자타불이(自他不二)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우리 고유의 간호 정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부모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자식이 자신의 몸을 팔거나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자타불이 사상에서 비롯된 자기희생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신체적 희생 그 자체가 질병을 직접 치료했다기보다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로 지극한 효성 때문에 부모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효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간호행위는 대부분 환자의 안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시킨다는 요소는 특히 효도 사상에 의한 간호행위의 절대적인 요소이었다. 이러한 효의 실천은 환자의 나이, 질환의 종류, 환자의 활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간병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포함하였다. 실제로 환자들의 진료가 한정된 조선시대의 상황에서 환자를 보살피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환자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간호행위는 환자가 아닌 노인을 돌보는 상황에도 적용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노인의 건강관리와 간호 행위는 조선시대 노인관이나 노인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조선조의 노인관은 노인에게 효도하는 가족의 차원으로부터 노인을 공경하는 국가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충효 정신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노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었던 것이다. 또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효도라는 유교적 이념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 내면에는 자연과 환경의 조화, 즉 인간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생활관이 깊이 베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문실·한영란·신윤희, 1994).

V. 맺음 말

조선시대 노인복지정책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복지정책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기보다도 국가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윤리적인 틀이었다. 비록 경제적인 수준 때문에 노인들을 물질적으로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노인의 공경을 바로 가족공동체, 사회, 국가를 유지시키는 근본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 신분제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구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은 보편화되어 있었다.

조선조는 비록 유교, 특히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서 가족과 사회의 획일적인 질서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통치자인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명분은 일치하였다. 곧 조선조의 통치자들은 노인에 대한 공경과 효를 강조하였을 때 백성들을 결속시킬 수 있었다. 역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는데, 특히 양로연의 행사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현대의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조선조에도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는 신체와 심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신체적 측면에서의 관리는 나이와 기후에 알맞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는데, 이는 신체적 안정이나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조치이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신체적 안정보다도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더 관심을 두었다. 심리적 안정이나 평온함은 특히 감정을 절제하는 행위로부터 비롯된다고 가르쳤는데, 이 방법은 현대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의 간호행위는 전반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주위환경, 식이 조절, 간병행위, 자기회생 등의 차원에서 설명된다. 노인의 간호행위는 역시 효도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과 인간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생활관에서 비롯되었다. 즉 자연 조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신체가 손상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에서 노인의 건강관리가 모색되었던 것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 일원론적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었는데,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결국 간호행위를 포함한 조선조의 노인에 대한 복지는 가족공동체의 사회적 확대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봉숙 (1997). 노장의 건강담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연 (1985). 조선조의 경로교육과 노인복지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실 · 한영란 · 신윤희 (1994). 한국 전통사상 속에 나타난 환경개념에 대한 고찰. *대한간호학회지*, 24, 251-263.
- 김주희 (1998). *문화와 간호*. 서울: 현문사.
- 김태현 (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박재홍 (1990). 노인복지와 지역사회의 역할. *지역개발연구*, 1, 1-13.
- 성규탁 (1989). 현대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가족중심적 부모부양의 이념 및 실천. *한국노년학*, 9, 28-43.
- 양정희 (1998). 노인의 건강신념과 건강관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복 (1991). *간호사*. 서울: 수문사.
- 이영자 (1996). 조선시대의 문헌에 나타난 간호행위. *정신간호학회지*, 5 (2), 141-151.
- 최영희 · 고성희 · 강신표 (1992). *간호와 한국문화*. 서울: 수문사.
- 최준식 (1998). 한국적 측면의 대체요법: 한국적인 간호학의 정립을 위한 한국문화의 기초적 모색. 대한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 통계청 (1997). *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한국노년학 연구회 학술발표회 개최 상황

1991. 5. 11. 창립총회

1991. 6. 29. 하계집담회 (제1회)

발표자 : 송대현 교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장 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

주 제 : 노년학 연구의 필요성

1991. 9. 28. 제 1 회 (1991년도) 정기학술대회

장 소 : 전남대학교 제2학생회관 회의실

좌 장 : 이영철 교수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자 : 박재간 소장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제 목 : 노인 문제의 현황과 정책 과제

발표자 : 송은규 교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제 목 : 노인과 관절염

발표자 : 윤 진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제 목 : 인생 회고과정을 통한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연구

발표자 : 조유향 교수 (목포과학대학 간호과)

제 목 : 말기환자에 대한 간호와 Hospice적 접근방법

발표자 : 서혜경 교수 (광주대학교 보건학)

제 목 : 죽음의 준비를 위한 후기 성인교육

발표자 : 박무정 교감 (광주태봉초등학교)

제 목 : 연령증가에 따른 지각과제수행능력의 차이

발표자 : 김창국 교수 (조선이공대학 건축과)

김수인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제 목 :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건축설계연구

1991. 12. 13. 동계집담회 (제2회)

발표자 : 김 미 교수 (광주보건대학 보건행정과)
김광운 교수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
장 소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세미나실
주 제 : 중년기 개인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조사

1992. 3. 20. 춘계집담회 (제3회)

발표자 : 조옥희 (전남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신효식 교수 (전남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장 소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세미나실
주 제 : 홀로된 여성의 생활 만족도

1992. 7. 4. 하계집담회 (제4회)

발표자 : 조희량 교수 (목포과학대학)
장 소 :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
주 제 : 노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1992. 9. 26. 제 2 회 (1992년도) 정기학술대회

장 소 :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
좌 장 : 김경신 교수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발표자 : 전정태 교수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제 목 : 노인교육의 현실적 고찰

발표자 : 한영현 교수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
제 목 : 재가노인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발표자 : 박준섭 박사 (광주대학교 강사)
김순홍 교수 (광주대학교 사회학)
제 목 : 광주권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발표자 : 최정혜 교수 (진주교육대학교 실업교육과)
제 목 :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갈등관계

좌 장 : 정승희 교수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발표자 : 문옥륜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제 목 : 노인의료 이용 양상에 대한 지역별 차이

발표자 : 조유향 교수 (목포과학대학 간호과)

제 목 : 노인의 구강보건 실태와 간호관리

발표자 : 윤가현 교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제 목 : 시각의 노화과정에 따른 행동특성의 변화

발표자 : 오미성 교수 (순천청암대학 간호과)

제 목 : 연령에 따른 죽음의 불안과 영적 안녕의 관계

1992. 12. 11. 동계집담회 (제5회)

발표자 : 임형택 교수 (광주대학교 산업교육과)

장 소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세미나실

주 제 : 노인교육

1993. 3. 24. 춘계집담회 (제6회)

발표자 : 정영해 박사 (Univ. of Iowa)

장 소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세미나실

주 제 : Leg pain in the rural Iowa 65+ population

1993. 6. 19. 하계집담회 (제7회)

발표자 : 조 현 교수 (인제대학교)

장 소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세미나실

주 제 : Hospice

1993. 9. 18. 제 3 회 (1993년도) 정기학술대회

장 소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좌 장 : 윤가현 교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발표자 : 전정태 교수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제 목 : 노인의 취업구조에 관한 고찰

발표자 : 윤수종 교수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제 목 : 농촌조직화와 노년층 문제

발표자 : 송대현 교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제 목 : 노년심리학의 현상학적 접근

발표자 : 김광운 교수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

제 목 : 노인복지제도의 역사적 고찰

발표자 : 전이상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호준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과)

제 목 : 노인의 여가 활용 방안

1993. 12. 11. 동계집담회 (제8회)

발표자 : 황용찬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장 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

주 제 : 일부농촌지역 노인들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능력과 그
에 관련된 요인

1994. 4. 16. 춘계집담회 (제9회)

발표자 : 송추진 (광주노인복지회)

장 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

주 제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현황

1994. 6. 18. 하계집담회 (제10회)

발표자 : 이신숙 박사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장 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

주 제 : 기혼여성의 노부모 부양시 받는 스트레스

1994. 10. 8. 제 4 회 (1994년도) 정기학술대회

장 소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좌 장 : 윤가현 교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발표자 : 박병권 교수 (조선대학교 의학과 재활의학교실)

제 목 : 노화에 따른 체력관리

발표자 : 이정애 교수 (전남대학교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제 목 : 미국의 가정의료 사업

발표자 : 정원영 교수 (조선대학교 의학과 신경내과학교실)

제 목 : 노인성 치매

발표자 : 강병우 교수 (광주보건대학 물리치료과)

심문숙 교수 (광주보건대학 간호과)

제 목 : 한국노인문제의 보건사회학적 고찰

발표자 : 조유향 교수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제 목 : 일부지역노인의 장애 및 생활 활동정도에 관한 조사
연구

발표자 : 신현옥 원장 (한국전통단방요법연구원)

제 목 : 무병장수에 관한 소고

발표자 : 권오정 교수 (경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제 목 : 노인요양원내의 치매성 노인을 위한 특별보호시설의
요소에 관한 연구

1994. 12. 16. 동계집담회 (제11회)

발표자 : 이경락 교수 (영동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주 제 : 노인의 주거생활을 위한 물리적 환경

1995. 3. 24. 춘계집담회 (제12회)

발표자 : Douglas Kimmel 교수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심리학과)

주 제 : Aging in the U. S.

1995. 7. 4. 하계집담회 (제13회)

발표자 : 김희경 (전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주 제 :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며느리들의 심리적 부담

1995. 12. 15. 제 5 회 (1995년도) 정기학술대회
장 소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좌 장 : 김경신 교수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발표자 : 박 향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제 목 : 광주지역 일부 노인들의 건강진단 실시이후의 추후
관리 실태

발표자 : 윤순덕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연
구원, 농가정학)
제 목 : 농촌 노인관련 문제의 분석과 기초전략
탐색연구

발표자 : 이영철 (광주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
제 목 : 노인복지 대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
한 고찰

발표자 : 송추진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윤가현 (전남대학교 교수, 심리학)
제 목 : 재가노인의 생활실태 연구

1996. 3. 30. 춘계집담회 (제14회)
발표자 : 이옥자 교수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제 목 : 말기 암 환자의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1996. 9. 13. 하계집담회 (제15회)
발표자 : 윤가현 교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제 목 : 노인성 치매를 평가하는 측정도구의 실제

1996. 11. 2. 제6회 (1996년도) 정기학술대회
장 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시청각실
좌 장 : 윤가현 교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발표자 : 공은숙 (예수간호대학 교수, 간호학)
제 목 : 미국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 기능 상태 모형 구축

발표자 : 고영완 (초당대학교 교수, 사회체육학)
제 목 : 14주간 walking 훈련 프로그램에 의한 비만 노인
여성의 혈청질 변화 양상

발표자 : 조유향 (초당대학교 교수, 간호학)
제 목 : 일본의 노인보건 복지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고찰

1997. 2. 17. 춘계집담회 (제16회)

발표자 : 현인숙 교수 (제주한라대학 간호과)
제 목 : 지역사회 노인보건 의료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1997. 6. 14. 하계집담회 (제17회)

발표자 : 최선하 교수 (원주전문대학 간호과)
제 목 :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경로당 이용노인의 건강
에 미치는 영향

1997. 12. 6. 제7회 (1997년도) 정기학술대회

장 소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좌 장 : 김경신 교수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발표자 : 서정자 교수 (초당대학교 국문과)

제 목 : 노년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 서인선 교수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제 목 : 양로원 노인의 생활시간과 생활실태

발표자 : 윤동성 (순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제 목 : 재가노인의 서비스 실태

발표자 : 엄기옥 교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목 :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과
제와 전망

1998. 5. 14. 춘계집담회 (제18회)

발표자 : 조미경 연구원 (영국 University of Kent)

제 목 : 치매노인과 부양가족

1998. 8. 7. 하계집담회 (제19회)

발표자 : 정현숙 연구원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제 목 : 치매노인 부양자의 치매관리전략 효과

1997. 11. 7. 제8회 (1998년도) 정기학술대회

장 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시청각실

좌 장 : 이은희 (천주의 성요한병원 임상심리사)

발표자 : 정성택 교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제 목 : 노인과 골절

발표자 : 권혜란 교수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과)

제 목 : 노인성 특수질환에 대한 응급처치

발표자 : 한동희 (노인생활과학연구소 소장)

제 목 : 노인전문병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임병우 연구원 (영국, Univ. of Kent)

제 목 : 영국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발표자 : 김수옥 교수 (전남과학대학 간호과)

제 목 : 조선조 노인복지정책과 건강관리

한국노년학연구 제 1, 2, 3, 4, 5, 6 권 목차 안내

<1992년 제 1 권>

창간사	송 대 현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의 방향	조 유 향
죽음을 준비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제언	서 혜 경
노인과 관절염	송 은 규
高齢者の生きがい	井上勝也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김 창 국 · 김 수 인
知覺주의집중과제수행에서의 연령차	윤 가 현 · 박 무 정
Longevity culture in Okinawa, Japan	片 多 順

<1993년 제 2 권>

노인의료양상의 지역적 변이에 관한 연구	문 옥 룬
노인의 구강건강실태와 관리대책	조 유 향
시각의 노화과정에 따른 행동특성의 변화	윤 가 현
호스피스의 비용효과에 관한 고찰	조 현
평생교육적 노인 교육	전 정 태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들의 성인자녀와의 갈등 비교	최 정 혜
노년학에 관한 국제학술대회의 동향	윤 가 현

<1994년 제 3 권>

노인요양원내의 치매성노인을 위한 특별보호 시설의 물리적 환경요소에 관한 연구	권 오 정
농촌조직화와 농촌노년층 문제	윤 수 중
日本國における特別養護老人ホーム職員の仕事 満足度について	長田久雄
노인부양의 문제와 대한 : 가족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 경 신
21世紀 老人醫療保障을 위한 小考	강 병 우 · 심 문 숙
장년 및 노년층의 숫자범위과제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	하 현 옥 · 윤 가 현
일부지역 노인의 장애 및 생활정도에 관한 조사 연구	조 유 향
민간체험으로 전래된 단방요법	신 현 옥

<1995년 제 4 권>

- 노인복지 대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고찰 이 영 철
 응급실에 내원한 노인환자의 임상적 고찰 강 병 우
 재가서비스 수혜자인 독거노인의 경제성 실태 연구 송 추 진 · 윤 가 현
 고령자의 주거시설에 있어서 인간과 물적환경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이 경 락
 Growing Older in the US Douglas C. Kimmel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전 정 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노인복지 윤 순 덕

<1996년 제 5 권>

- 의료혜택이 적은 미국 농촌노인의 생활기능상태의 결정요인에 대한 인과모델 구축 공 은 숙
 The Effects of Family Formation on the Labour Supply of Japanese Elderly Nobuhiko Meada
 노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 경 신
 일본의 노인 보건 복지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고찰 조 유 향
 Mis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Yong-Jin Son
 치매노인 및 정상노인 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 비교 김 희 경 · 윤 가 현
 14주간 두가지 걷기 (walking) 훈련 프로그램에 의한 비만 노인여성의 혈청지질 변화 양상 고 영 완

<1997년 제 6 권>

- 노인의 신체적 균형, 일상생활활동과 우울증의 관계 허 혜 경 · 김 미 정 · 조 미 옥 · 최 상 순
 양로시설 입소노인의 생활사건과 생활실태 서 인 선 · 최 일 립 · 조 유 향 · 차 경 미 · 최 영 희
 Activity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igh Functioning Elderly Jung Ki Kim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 연구 김 경 신
 Retirement Choice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Yong-Jin Son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노인교육 정 종 식
 일본 공적 개호 보험제도의 구상배경 및 논의과정 엄 기 욱

